다산포럼

틱낫한 스님과 함께한 십오일

금 강
미황사 주지 스님

15년 전 고불총림 방장이셨던 서옹 스님을 모시고, 참사람결사운동과 무차선회를 하던 때 스님의 세수가 88세였다. 그때 내가 지혜가 있었다면 좀 더 깊은 공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움과 행복의 길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늘 나를 따라다녔다.

스님이 열반하신 후 미황사에서 80차례의 참선집중수행안거를 진행하며, 사람들의 고통을 수행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애쓰고 있지만 그때의 아쉬움은 지금도 남아 있다.

세계적인 수행 지도자 프랑스 플럼빌리지의 틱낫한 스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첫 날, 88세 노구의 스승을 뵙자마자 '아! 내가 보름 동안의 모든 일정을 온 마음을 다해 모시고 다녀야 되겠구나.'고 생각했다.

틱낫한 스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내용은 5일 동안 한국의 사찰에서 머물며, 일반인들의 사회적 갈등과 개인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지도하며 수행안거를 전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늘 공격적인 대화, TV나 잡지 등을 통해 감정적 독소들을 빨아들인다. 이런 감정적 독소들이 숨어 있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 자살이나 폭력 형태로 뛰쳐나오게 된다. 또한 우리는 관계에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통을 보고 들으려 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 걷거나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노래하라. '나는 도착했네. 나는 집에 있네. 여기 그리고 지금. 나는 단단하네. 나는 자유롭네.'(I'm arrived. I'm home. in the here and in the now. I'm solid. I'm free.)"

두 번째의 모습은 스님들 500명을 대상으로 한 '깨어나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다. 사회가 고통받고 있을 때 불교와 승가(僧伽)가 그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개인, 가족, 학교, 사회에 폭력이 만연하고 고통이 가득 찰 때 불교가 대응하고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행자를 교육하는 교재도, 외우는 염불도 수백 년 전 것 그대로여서는 불교도 살아남을 수 없다. 출가 수행자는 삶 속에서 자애로움이 배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스님의 미소와 말하는 방식, 걷는 모습에서 가르침을 얻는다. 승가의 모습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느껴질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모습은 부산 범어사와 서울을 오가며, 남북한 대립에 대한 걱정과 해법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화되기를 강조했다. "남북문제의 핵심은 핵무기가 아니라 우리 안의 두려움과 화 때문이다. 핵무기를 없애는 것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로의 고통을 들여다 본 후, 남북 간 깊이 듣고 자애롭게 말하는 수행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애로운 마음을 가질 때 남북의 화해와 평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해 불교 지도자들이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을 한 달 동안 지속한다면 집단적 평화와 화해의 에너지가 생겨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란 생각도 틱낫한 스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번 스님의 방한은 35명의 법사단과 함께 왔다. 서울의 국제선센터의 비좁은 공간에서 보름 동안 지내기에 불편한데도 제자들과 함께 자고 생활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동을 할 때도 함께 버스를 타고, 늘 개인이 아닌 대중 속에 있기를 원했다. 오신채는 물론 치즈도 드시지 않을 정도로 계율에 철저하며,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철저한 수행자이기를 고집하셨다.

보름 동안의 일정 중에서 마음 졸 일 때가 여러 번 있었다. 매일 법문을 두 시간 넘게 하고, 걷기수행 한 시간을 꼬박꼬박 하시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게다가 전국을 누비며, 이동을 하다 보니 따라다니는 젊은 나도 벅찼다.

스님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와 한숨도 못 주무시기도 했고,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러는 중에도 법문을 하거나 대중을 지도할 때는 스님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붓고는 하셨다.

가까운 거리에서 스님을 모시며 나를 경이롭게 했던 것은 매순간, 한걸음 한걸음이 생생하게 깨어계셨다는 것이었다. 또한 모든 방법과 에너지를 법을 설하는 데에 모으는 모습, 또한 감동 그 자체였다.

스님이 떠나시는 날, "사람들의 근기에 맞추어 지도하라. 개념으로 가르치지 마라."는 귀한 법문을 내게 남기셨다.

큰 스승 서옹 스님과 틱낫한 스님을 지켜보면서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앞선다.

교통칼럼

가짜 환자로부터 자유로운 광주

한 하 민
광주시 교통안전과장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운전을 하다가 소형 트럭에 들이받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근육이 놀라 여기저기 아프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입원했느냐?"고 물으니, "합의금을 잘 받기 위해서라며 치료비는 가해자나 보험사가 낼 테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접촉사고를 과도하게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사례를 직접 목격하게 돼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2011년 광주시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8328건에 사망 113명, 부상자 1만346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 후 병원 후송과정에 응급환자와 경미한 환자의 구분이 없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한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신체에 이상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자주 외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환자를 전문용어로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2008과 2009년 자동차사고 관련 입원율은 각각 60.6%, 58.5%로 약간 감소 추세이지만, 이마저도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끄럽다. 일본의 6.4%에 비해서는 약 9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으므로 일부 환자는 과도한 보상심리를 갖게 된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여기에다 일부 의료기관들도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교통사고를 자동차등록대수, 보험사·공제조합에 접수된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해 보면, 경찰청에 접수된 발생건수는 1.68배, 부상자수는 1.64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체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비슷한데도 경찰청에 접수된 발생건수와 부상자수가 60% 정도나 월등히 많다는 것은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 즉 속칭 '나이롱 환자'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대책은 없는 것일까? 우선 진료비에 대한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체계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을 보험소비자가 과다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가입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입원진료와 통원진료에 대한 보상금 차이를 최소화하거나 통원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부재율이 높은 저녁이나 주말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점검반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을 부여하고, 적발된 병의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는 물론 해당 환자에게는 부당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자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변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의연한 기상을 펼치면서 발전해 나가려면 더 이상 비양심적인 부재환자가 발 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부재환자가 없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도시를 만들어 가는 첩경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기고

인간존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김 용 하
광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근래 유명 탤런트 일가의 자살, 전주의 어느 일가족 살해사건이나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으로 일시에 형제가 살해당하는 사건 등 날마다 벌어지는 참혹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졸지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처참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저린다. 또한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사건을 저지르고, 정신을 차려 돌아보면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가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와진다. 대부분이 사전에 계획이나 모의가 없이 순간적인 분노의 소산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 순간의 격분이 세상의 끝으로 내모는 이 놀라운 삶의 질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칭 운명의 장난이라고 치부해버리기는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의 극단적인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사회갈등 요인과 부의 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지만,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경제적 풍요국이 자살률이 더 높고, 행복지수가 낮은 반면에 국민소득이 낮은 후진국 국민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것이다.

요즈음 풍요속에서 과연 우리는 평안한가? 삶은 까닭 없이 분망하고, 스트레스에 쌓여 있다. 온갖 참혹한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편리와 신속성이 극대화되었음에도 우리는 한가의 여유를 누리고 있지도 못하다.

이런 시대에서 민주공동체적 시민으로서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때로는 적극적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양심에 따라 정의를 부르짖고, 계도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적 합리성과 행적 일관성의 바탕위에서, 올바른 가치의 정립을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이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외경과 존엄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광주 검찰시민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검찰은 국가존립의 기초인 법을 수호하고, 사회의 공공 질서유지를 위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을 법의 잣대로만 냉혹하게 재단하는 것보다는,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양심과 관습과 인간적인 정서에 바탕을 둔 조언을 참고하여, 높은 벽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검찰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민주주의 기본인 인간존중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가치를 존중한다면, 처벌보다는 계도와 예방 등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관계되는 이들의 특단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다.

지나친 육식 경계론, 오히려 부작용 낳는다

요즈음 유난히 귀에 거슬리는 게 있다. 신문 방송에서 난데없이 육식이 해롭다거나,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안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례가 종종있다. 그것도 유명한 학자나 교수, 의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고들 있다.

그런데 이런 한마디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고기를 덜 먹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축산농가들을 힘들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걸까? 고기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왜 유독 고기를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채식주의자들의 채식예찬을 무턱대고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려 깊지 못한 의사들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자칫 왜곡되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으로서 엉뚱한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다.

한때는 몸에 좋다고 해서 온 나라 까마귀가 남아나지 않았고 지렁이와 굼벵이까지 죄다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 이는 건강에 좋다면 뱀도 날 것으로 먹을 정도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어떤 식품이든 과다섭취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건 고기뿐 아니라 곡물탄수화물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편식이다.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는 힘의 원천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육성장에 필수적인 식품이다. 그걸 무작정 해롭다고 하는 무분별한 발언은 삼가해주기 바란다.

이런 판국에 매스컴에서 육식 고기가 몸에 해롭다고 자꾸 떠드는 건 옳지 못하다.

종교적 이유나 특정 사고관념의 채식주의자들의 식생활을 일반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무턱대고 육식 유해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의사의 말은 신중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함에도 최근 일부 의사들은 거두절미 한 채 채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채식예찬은 '육식은 무조건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너무나 개인적인 생각에서 육식 유해론을 펼치다 보면 자칫 소비자들이 육식을 줄여 엉뚱한 부작용이 생기고 국민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유일숙·광주시 동구 수기동

社 說

검찰 '전두환 비자금' 찾고도 추징 않다니

검찰이 지난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 포탈사건 재판에서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167억 원의 국민주택채권 중 73억 원 상당은 아버지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있던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 대통령의 자금인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국가의 추징금 채권은 민사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데도 말이다.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법집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상부의 압력 등 의혹을 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2·12 반란 및 내란 수괴, 뇌물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는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672억여 원을 여전히 내지 않고 있는 파렴치범이기도 하다. 그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고, 손녀가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등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가 집권 과정에서 기업인들을 협박해 강제로 빼앗은 수천억 원의 불법자금이 그 일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씨의 은닉 재산을 오는 10월10일까지 찾아내지 못하면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받아낼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의 대응은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식이었다. 검찰이 뒤늦게나마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하니 정부도 법적 뒷받침 등 환수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추징금 관련 3개의 법안을 6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 전씨 일가의 불법재산을 몰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강제노역을 시켜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와 국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쓰러진 법치와 사회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

탈주범 광주 잠입 일주일째, 경찰 뭘 하나

전주지검 남원지청 탈주범 이대우가 광주에 잠입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행방이 오리무중인데다 추가범행마저 우려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경찰은 이씨의 얼굴을 몰랐다가 피해자 신고로 뒤늦게 행방을 쫓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어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대우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N마트에서 현금과 운동화를 훔친 뒤 서구 농성동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뒤 행방을 감췄다고 한다. 경찰은 N마트가 털렸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분석했지만 절도범이 이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탈주 뒤, 전북경찰이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했지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광주에 잠입한 사실도 닷새 만에 파악하는 등 초동 조치에 소홀했다. 경찰은 금품을 도난당한 마트 주인의 제보 전화를 받고서야 잠입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경찰이 지난 21일부터 경찰관 2200명을 동원해 광주 전역을 검문검색했으면서도 이씨 행방을 몰랐다니 탈주범에게 달아날 시간을 제공해 준 셈이다. 이대우가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던 점을 미뤄 이미 광주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크다.

경찰 일각에서는 범인 검거보다는 '제발 내 관할 구역만은 피해갔으면' 하는 복지부동 분위기도 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저 책임만 벗고 보자는 안이한 자세가 수사를 그르치고 있다.

광주경찰은 지금이라도 전국경찰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탈주자를 검거해야 한다. 범죄자는 반드시 붙잡혀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제2, 제3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입만 열면 민생치안을 강조하는 경찰이 탈주범 하나 못 잡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無 等 鼓

아! 칸첸중가

최근 며칠 사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세계 각국 산악인들의 히말라야 등정 성공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이슬람 율법에 의해 체육활동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모하라크(25)와 강도에 떠밀려 철길로 떨어지면서 달리던 기차에 한쪽 다리를 잃어 의족을 한 인도 여성 아루니마 신하(26)의 에베레스트(8850m) 등정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또 80세의 일본 산악인 미우라 유이치로(三浦雄一郞)씨도 세계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정 기록을 갈아 치웠다. 사회적 편견과 장애, 나이를 초월한 '위대한' 등정이다.

우리나라 산악인의 등정 성공 소식도 이어졌다. 김창호(44) 대장이 지난 20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를 무산소로 모두 오르는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같은 날, 열 손가락 없는 장애 산악인 김홍빈(49·예솔스포츠 홍보이사) 대장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칸첸중가(8586m) 등정에 성공했다는 낭보가 현지에서 전해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과 하루 뒤 김창호 원정대의 서성호(34) 대원, 김홍빈 대장과 함께 칸첸중가 정상에 선 박남수(47·광주시 산악연맹 산악구조대 지도위원) 등반대장이 하산길에 숨졌다는 안타까운 비보가 날아들었다. 박 대장은 지난 3월 16일 원정대 발대식에서 취재차 만난 터라 더욱이 충격이 컸다.

29일이면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와 셀파 텐징 노르가이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첫 등정한 지 꼭 60주년을 맞는다. 1924년 에베레스트 등반 중 사망한 영국 산악인 조지 말로리는 왜 산에 오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Because it's there)라는 명언을 남겼다.

극한 환경에 도전하는 산악인들의 '위대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히말라야 설산에서 영면한 고(故) 박 대장과 서 대원의 명복을 빈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